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 특색있는 설계형성안들

얼마전 평양에서 제14차 5.21건축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건축축전은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구상따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모든 건설물들을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번 축전에는 전국의 건설 부문 건축가들과 기술자들, 과학교육기관 일군들과 대학생들이 제출한 600여건의 건축설계현상모집작품, 과학문물들과 30여건의 건설설계프로그램 및 다매체편집물들이 출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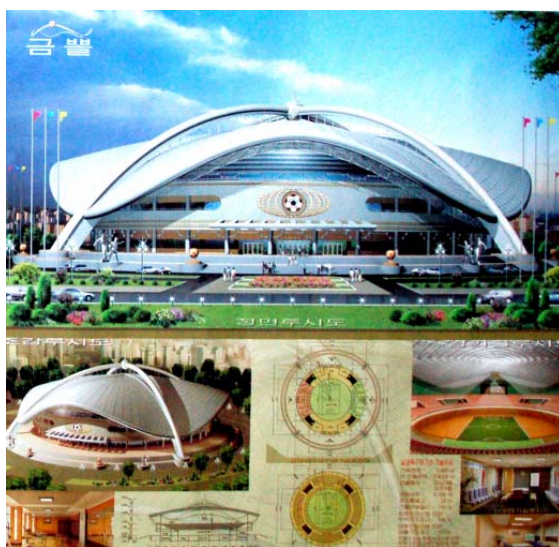
축전에는 나라의 여러 관광지구들에 훌륭히 일떠서게 될 몇쟁이살림집들과 초급중

학교, 고급중학교, 청소년체육학교, 대학기숙사개건현대화설계안을 비롯한 교육건설설계형성안들 그리고 도, 시, 군 구획개건현대화설계형성안들이 제출되어 참관자들의 인기를 모았다.

관광지구들에 일떠설 종합적인 다기능봉사건물형성설계안들과 실내건축경기관설계안들, 호텔을 비롯한 각종

급열, 난방, 급수와 배수, 조명체계 등이 컴퓨터 즉 프로그램론리조절기(PIC)에 의한 건축설비관리 및 감시조종체계에 의하여 조종되는 지능형살림집모형은 종전에 비해 연간 전력을 30%이상 절약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기능조종체계의 통합관리를 진행하는것으로 하여 가치가 큰 설계형성안으로 평가되었다.

주제건축의 발전면모를 반영한 《번혁》, 《환꽃》, 《금뿔》 등의 현상모집작품들과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 분수특지살수통합조종계, 다기능봉사건물 실내장식안내를 비롯한 건설설계프로그램 및 다매체편집물들, 《현대적인 종합봉사당 해당화관건축형성에 대하여》, 《관광객수요와 관광지용량을 고려한 관광지구규모결정》 등의 논문들도 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얼마전 평양의 중앙동물원에 조선의 국조-삼매개 보금자리를 펴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기자는 최정식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강좌장, 정금성 중앙동물원 동물사양관리연구소 조류연구실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참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중앙동물원에서 직접 보니 융감하고 강의한 우리 민족의 기상을 안고있는 조선의 국조답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정금성: 일반적으로 국조는 해당 나라들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친숙해진 새 또는 특산종의 새를 정하는데 그 나라의 풍토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이 많다.

구름우연 참매 낳고 목란꽃핀 이 강산이라는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의 구절에서 나오는 참매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조선의 국조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몸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부리와 역센 발톱, 균형잡힌 몸매와 빠른 눈을 가지고있는

조선의 국조-삼매

참매는 슬기롭고 융감한 우리 민족의 기개,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는 우리 인민의 역센 기상을 잘 드러내고있다.

기자: 참매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있다고 본다.

최정식: 옛적부터 우리 인민은 참매를 길들이 쟁, 비둘기, 메도끼와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널리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참매의 특성을 살려서 사냥하는데 널리 이용하였으나 참매를 길들이 때에는 등지에서 어느 정도 자란 새끼를 집에 가져다가 먹이를 주면서 사냥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길들인 매는 수지니라고 불렀고 산에서 자란 야생매는 산지니라고 불렀다. 꼬리가 다른 매들보다 길기때문에 참매는 일명 긴꼬리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자: 참매의 생물학적특성은 무엇인가?

정금성: 참매는 우리 나라에서 번식하고 겨울을 나는 사철새이다. 바늘알나무와 넓은 잎나무가 섞인 숲에서 주로 사는데 백두산일대를 비롯하여 량강도와 자강도, 함경남도 등 고산지대에서 살며 겨울에는 중부이남지대까지 내려온다.

보통 4월말~5월초에 번식하며 키나무가지우에 둥지를 튼다. 무리를 짓지 않고 한마리씩 생활하며 번식기간에만 짝을 이룬다.

알은 라틴형이고 연한 청색을 띠는데 보통 한배의 알수는 3~4개이다. 성숙된 수컷의 몸무게는 500~800g, 몸길이는 403~576mm, 꼬리길이는 149~285mm, 부리길이는 18~22mm이다. 암컷의 몸무게는 640~1100g, 몸길이는 466~600mm, 꼬리길이는 221~275mm, 부리길이는 19~25mm로서 수컷보다 크다.

부리는 짧고 앞끝이 구부러졌으며 다리는 가늘고 긴데 연한 분홍색을 띤다. 등, 허리부위는 연한 검은색이며 꼬리는 밤색을 띤 검은색, 끝은 흰색이다. 가슴, 다리깃은 흰색인데 가로 난 검은 밤색의 무늬가 있다.

기자: 참매에 맹금에 속하지 않는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최정식: 매의 한 종류로서 성질이 사나운 참매는 주로 설치류와 쟁, 비둘기, 산술새와 같은 새류를 잡아먹는데 공중에서 방방 뚫다가 먹이를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내려쫓는다. 보통매는 소리

축전기간 제9차 건축미학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건축미학토론회에 참가한 설계, 시공, 견제, 감독, 미술창작단위, 과학연구, 교육기관의 일군들, 건축가, 기술자, 교원, 연구사, 창작가들은 오늘 우리 나라의 건축창작사에 일찌기 없었던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를 내지 않으나 경계할 때에 《깃, 킷, 킷》하는 예리한 소리를 낸다.

참매는 중앙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하는 새이다. 우리는 참매에 대한 연구와 사양관리를 잘하고 그 마리를 늘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국조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도록 하였다.



정, 인정미 (1)

—가까이 있어야 정이 두러워진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접촉해야 서로 정이 두러워진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드는 정은 물리도 나는 정은 안다.

어떤 사람에게 정이 들 때는 드는줄 모르게 들어도 정이 나가 싫어질 때는 차차 정이 멀어져가는것이 뚜렷이 알린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사랑은 내려가고 격정은 올라간다.

사랑은 언제나 옷사람이 아내사람에게 베풀어주고 격정은 아내사람이 옷사람에게 끼치는 법이라는것을 이르는 말.

— 정이 있으면 꿈에도 보인다.

서로 정이 들면 마음이 통하고 꿈속에서라도 만나보게 되는 법임을 이르는 말.

《장가든다》와 《시집간다》는 말의 의미

에로부터 우리 나라의 혼인형태에는 처가살이혼과 시집살이혼이 있었다. 이것은 거처지를 통해본 혼인형태이다. 처가살이혼은 신랑이 장인, 장모가 있는 신부집에 가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처자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혼인 형태이다.

신랑이 장인, 장모가 있는 집 즉 《장가》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장가든다》는 말이 생겨났다. 시집살이혼은 처가살이와는 정반대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시부모가 있는 자기 집으로 직접 데리고 들어와 부부생활을 하는 혼인형태이다.

신부가 남편을 따라 시부모가 있는 집, 즉 《시집》에 간다는 의미에서 《시집간다》는 말이 생겨났다.

본사기자

개성고추장 (2)

글 전철호

《지금처럼 터발에 기껏 삼이나 목화를 심어서는 백날 가도 안될줄 아나이다. 그것에선 철마와 파, 마늘, 고추, 가지, 오이, 부추, 호박, 고수, 무우, 배추같은 남새를 심는다면 추우나더우나 배상우에 신선한 남새찬을 올릴수 있나이다. 이걸 어찌 량반부자들의 밥상을 차지하는 고기반찬만 못하다 하겠나이가?》

군달은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대답을 줄수가 없었다. 안해가 집어든들의 밥대접에 얼마나 원성을 쏘으면 이런 생각을 다 해냈을까. 구미도는 식찬을 한가지라도 더 좋겠다고 봄에는 산나물을 뜯어오고 여름엔 버섯따기, 가을엔 성박에 나가 로란같은 귀물을 구해들이고 누굴 집에서 색다른 음식을 만들었다면 한달음에 달려가 그 비결을 배워온 안해였다.

하지만 터발에서 나는 목화나 삼에 온 집안이 명줄을 걸고사는 가난한 살림에서 반찬거리나 얻자고 남새를 심겠는가.

《여보, 천정집에 갔다오면서 보느라니 저 오정문밖에 있는 승학동여귀에 갈래 한마지거나 일곱만 한 공지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목화나 삼을 심으면 살림밀천을 좀 장만할수 있을것 같나이다.》

《그게 참마리오? 내 래일 당장 달려볼터 땅이 열기전으로 몽땅 일구겠소.》

그날밤 장씨는 거뿔한 마음으로 단잠에 들수 있었다. ... 땅이 녹고 해토비가 내려자 야산들엔 붉고붉은 진달래가 푸게 물들고 또다시 산발은 새파랗게 단장하고있었다.

장씨는 겨우내 알알이 골라두었던 종자주머니를 꺼내서 지붕우연 호박을 울리고 담밀엔 오이를 심고 잘 썬은 거름을 듬뿍내 터발에 다가는 절기에 맞게 남새씨를 뿌렸다.

군달은 날이 따뜻해지자 시골로 몸을 팔러 떠났고 시아버지는 개간지에 심은 목화를 돌본다고 나가살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남새밭을 가꾸고 시할아버지는 종손자들을 거느리고 옛말을 들려주고 글도 가르친다며 바빠돌아갔다.

장씨는 끼적매면 흥바람이 났다. 심심한 부루썽에 국으로는 구수한 아우국, 애호박젓국, 무우젓국, 반찬으로는 꽃고추지찌개, 가지나물, 오이통김치, 고수판지같은것들에 산나물반찬까지 곁들여서 상을 한가득 채우니 호호한 웃음소리가 아침부터 넘쳐났다.

시할아버지는 허연 수염을

개성고추장 (2)

그림 김윤일

내리쬐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였거늘 아기덕분에 입맛이 나서 못된 병이 달아나고 젊어진다고 늘 칭찬이다.

개들이 허바닥을 길게 뽐고 힘뻑이는 삼복께이 닥쳐들자 그렇게 잘 자시던 시할아버지가 밥그릇을 절반도 비우지 못하였다. 그러더니 자리에 누워 며칠째 앓음소리까지 내며 일어나지 못하였다.

장씨는 근심에 사로잡혔다. 사람이 환갑을 넘기면 나날이 팔라보게 병약해져서 겨울라고 여름라는것은 어쩔수 없는 법이라고 한하지만 장씨가 보건대 무정하게 달려드는 그 늙음을 막아주는 가시막대기가 있다. 그 가시막대기는 다름아닌 효도라는 것이었다. 효도란 어른들을 잘 돌봐드리고 잘 섬기는 자식들의 도리인즉 무거운 밥상을 안고 들어갔다가 가벼운 밥상을 들고 나서는것이 아니겠는가.

시어머니도 안타까워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하루는 장씨를 불러 수단을 빗자고 하였다.

수단이란 흰쌀가루를 밤알만 한 크기로 동글동글 빚어 삶는 물에 삶아내서 식힌 다음 얼음을 동동 띄운 꿀물에 담가어내는 여름철의 별식이다.

시할아버지는 가까스로 자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보현사 4각 9층탑

평양민속공원에는 1044년에 세운 묘향산 보현사 만세루에 있는 돌탑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놓은 보현사 4각 9층탑도 있다.

연한 회색의 화강석을 정교롭게 다듬어 만든 이 탑은 4각평면의 탑으로서 그 높이는 6m이다.

탑의 맨 밑에는 두층의 바닥돌을 깔고 그우에 두 단의 밑단을 올려놓았다.

아래밑단 가운데 돌에는 매면마다 같은 크기로 뿔뿔오모기를 3개씩 새겼다.

오모기의 형태는 자혜사 5층탑의 그것과 비슷하다.

가운데돌밑에는 낮은 고임을 한단 두었다. 갑돌우면에는 돌아가면서 뿔뿔오모기를 세웠다. 웃밑단의 가운데돌 밑에는 각각 하나씩의 커다란 뿔뿔오모기를 새겼다.

갑돌은 따로 웃면과 아랫면을 가르고 면마다 세겹으로 된 뿔뿔오모기를 세웠다.

밑단을 이와 같이 오모기와 뿔뿔오모기로 다양하게 형상한것은 고려시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이것은 탑의 조형예술적가치를 한층 돋구어 준다. 밑돌 한변의 길이는 3.55m이다.

탑몸은 9층으로 되었다. 탑몸돌은 위로 올라가면서 높이와 너비를 차례로 줄였다. 탑의 첫층 몸돌 남쪽면에는 높이 50cm, 너비 45cm, 깊이 65cm의 네모난 불갑이 있다.

옛날에는 불갑속에 《다보》부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탑을 《다보탑》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첫층 몸돌의 북쪽면에는 탑을 세운 목적과 그 년대를 적은 글자가 새겨져있다. 매층 몸돌밑에는 띠모양의 2단 고임을 주었다. 몸돌의 면들에는 모서리부분들에 홈을 파서 테를 나타낸것이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특이한 수법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으로 날아가주렴아.》

그 순간 화살들은 약속이나 한듯 들관 한가운데로 날아가 폭폭 꽃혔다. 거기서는 칠색무지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무지개속에 난데없는 한송이의 꽃이 피어났다. 알수 없는 층동에 이끌려 달려들러 구슬네가 꽃포기밀을 더듬어보

니 열쇠가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돌바위굴에서 뿔나팔을 꺼내어 오랑개들을 물리쳤다.

그날 새벽 승리를 축하하듯 첫서리가 내려 어디나 서리꽃을 피웠다. 그러나 모래재들관 한가운데 핀 꽃만은 찬서리에도 고백없이 보라빛꽃임을 하느적이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꽃을 나라를 위해 들에 피어날 꽃이라고 하여 《들국화》라 불렀다고 한다.

본사기자

《아래까지 황든다고 웃가지도 황들면 나무는 죽고마느니라.》 하고 말했다. 장씨는 살들하게 내려지는 그 정에 목이 매여 눈물과 함께 밥을 먹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 저녁도 장씨는 어느 날처럼 무명을 낳자고 배를 매주었다. 그런데 광술불에 비쳐진 알뜰거리는 바디우에 끼적매면 손주며느리를 안심시키자고 억지로 일어나서 달계 밥을 드는척 하시던 시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것이였다.

그때 늙은이의 밥맛을 돌려드릴수가 없단 말인가. 이리에서 밥맛을 돌리는데서는 그저그만이였다. 보쌈김치에는 밥고고 배 같은 여러가지 실과들이 들어와 독특한 맛을 낼수 도 있었지만 새빨간 고추가 없었더라면 그 좋은 맛은 생각조차 할수가 없었것이다.

파언 고추는 파, 마늘이 대신할수 있는 양념감의 으뜸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이 좋은 고추를 가지고 어떤 좋은 반찬을 만들수 없을까.

아마 조선의 가을풍경을 말하라고 한다면 집집마다 빨간 고추라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매달려있는 것이 한 모습을 보려야 할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국이고 물고기반찬이고 하다못해 남새반찬에도 고추가루가 안들어가면 채 손이 가지 않은 음식이라고 여겼것이다.

그렇지! 고추가루의 매콤한 맛과 독특한 향기가 된장에서 느껴지게 하면 어떨까.

장씨는 그 생각이 아주 그럴듯 하다고 여겨지자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다음날 아침 장씨는 고추가루를 찢 된장을 시어머니한테 선참 맛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여러번이나 저가락으로 찍어 고추가루를 찢 된장을 먹여보더니 《된장을 그냥 먹기보담 이게 훨씬 나은것 같구나. 난 왜 이런 궁냥을 하지 못했을까.》 하고 탄식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이날 아침 밥상에는 방금 뜬은 싱싱한 된창과 함께 고추가루를 찢 된장이 오르게 되었다.



지 따라나오시던 시할아버지의 모습우에 입맛이 없었다며 추리를 쥐여주시던 시할아버지의 다정한 그 모습이 또 겹쳐났던것이다.

부엌에 따라나온 시할머니는 장씨의 손에 술잔을 들

런 때 시할하고 달면서도 쟁한 보쌈김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몇해전 자남산동전기기술의 신숙교근처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처음 만들어냈다는 보쌈김치는 김치중의 으뜸